

5세기 말 금강 중·상류의 대치선 이동과 삼국의 전략

李 富 五*

1. 머 리 말
2. 한성 함락 직후 미호천 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동향
3. 고구려의 금강 선 차단
4. 백제의 미호천 유역 회복과 대치선 안정
5. 맺 음 말

1. 머 리 말

475년 고구려의 漢城 함락은 삼국의 정세에 격변을 일으켰다. 고구려는 예성강-임진강 선을 둘러싼 백제와의 경쟁에서 기선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었고, 위기에 직면한 백제와 신라는 상호 결속을 강화해 고구려의 위협에 대응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삼국 간의 대치선을 요동시키기에 충분했다.

* 화정고등학교 교사

당시의 대치선에 대해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三國史記』百濟本紀와 地理志의 기록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연구의 양적 성과에 비해 일치된 견해는 미미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5세기 말경 삼국이 동시에 마주했던 대치선이 움직였던 공간은 한강 유역이 아니라 금강 중·상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 중에서도 진천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청주를 지나 금강으로 흘러드는 미호천 유역은 남한강 유역과 금강 유역 사이에 위치해 양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유리한 곳이었다. 또한 낙동강 유역에 기반을 두었던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은 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대상도 미호천 유역을 포함한 금강 중·상류였다. 이러한 지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면, 한강 유역을 둘러싼 백제와 고구려의 대치 문제에서도 실마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 전투기사와 성곽 지표조사를 근거로 5세기 말~6세기 초를 전후해 고구려가 금강 유역에 진출했다는 견해가 제출되었다.¹⁾ 이는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것은 아니었으나, 미호천 일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처음으로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신라가 484년 진천-청원 선을 확보한 뒤 6세기 전반까지 청원군 동남부의 신라와 청주의 백제, 그리고 증평 방면의 고구려가 서로 대치했다고 추정된 바 있다.²⁾ 이는 사료와 신라 성곽의 분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한 결과였으나, 신라사 중심의 접근으로 인해 금강 중·상류를 둘러싼 삼국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금강 중류의 北岸에서 남성골성이 조사되면서 고구려가 475년 전후부터 이곳을 장악해 520년 전후까지 이곳에서 고구려 토기를 사용했다는 해석이 이루어졌다.³⁾ 이는 대전 월평동 유적의 조사와⁴⁾ 함께 고구려의 금

1) 정영호, 「고구려의 금강유역 진출에 대한 소고」, 『산운사학』 3, 1989, pp. 109~126.

2)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문화사학』 11·12·13, 1999, pp. 369~371.

3)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원 남성골 고구려유적』, 2004, p. 297.

강 유역 진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⁵⁾ 그런데 위 연대는 방사성탄 소연대와 토기 편년을 바탕으로 한 대체적인 추정이었으며, 고구려의 장악기간을 명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추정 가능한 상한과 하한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475년 직후 고구려의 한성 지배를 부정하는 쪽에서는 안장왕대인 529년에 고구려가 남성골성을 장악한다고 보았다.⁶⁾ 이는 진천·청원 일대의 고구려계 耳飾,⁷⁾ 진천 대모산성과⁸⁾ 대전 월평동산성의 고구려계 토기,⁹⁾ 494년경 고구려가 남한강 깊숙한 지역인 薩水 일대까지 진출한 점 등을 중시한 결과이다. 여기서 한성 침공 직후 되돌아간 고구려 주력군이 미호천 일대까지 동시에 점령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494년 고구려의 살수 점령은 신라·백제 연합군이 고구려 세력을 남한강 지류에서 차단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청주 주변의 고구려계 이식은 시기폭이 5세기 후반~6세기 초에 걸쳐 있고,¹⁰⁾ 고구려 토기의 편년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금강 중류 남하시기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최근 금강 중·상류에서 삼국의 대치 상황은 새로운 각도로 조명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백제의 웅진 천도 직후 금강 중·상류의 전략적 위상 변화에 따라 삼국

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검토하려 한다. 이어 고구려가 금강선을 차단한 계기와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백제·신라의 움직임을 살피려 한다. 나아가 백제가 미호천 유역을 회복해 삼국 간의 대치선이 안정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6세기 중엽 신라와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를 밀어내기까지 삼국의 대치선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2. 한성 함락 직후 미호천 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동향

한성을 함락당한 백제는 금강 유역의 웅진으로 천도해 재기를 도모했다. 이에 같은 수계에 속하는 미호천 유역은 백제의 통제를 받는 한 지역으로부터 수도 동북쪽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로 바뀌었다. 게다가 북쪽으로 이웃한 남한강 유역에서는 5세기 초부터 고구려가 거점을 장악하고 있었고, 금강 상류에서는 5세기 후반부터 신라가 소백산맥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호천 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장에서는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 미호천 유역의 영역 향방과 이를 둘러싼 삼국의 움직임을 밝혀보려 한다.

남성골성에서 5세기 후반경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된 점으로 보면,¹¹⁾ 한성 함락 이후 일정한 시점에 고구려군이 이곳을 점령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과연 두 지점에 대한 공격이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성을 함락할

4) 박순발·이형원, 「대전 월평동 출토토기 및 고구려토기 산포유적」, 『호서고고학』 창간호, 1999: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외, 『대전 월평산성』, 2001.

5)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유적」, 『고구려연구』 12, 2001: 양기석, 「5~6세기 백제의 북계」, 『박물관기요』 20, 단국대학교석우선기념박물관, 2005: 서영일, 「5~6세기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경영」, 위책.

6) 김영관, 「고구려의 청주지역 진출 시기」, 『先史와 古代』 25, 2006, p. 667, p. 670.

7) 박영복·김성명, 「중부지역 발견 고구려계 귀걸이」, 『창산김정기박사화갑기념논총』, 同간행위원회, 1990, pp. 585~586.

8)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진천 대모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6, p. 84, p. 218.

9) 박순발·이형원, 1999 앞글, p. 250.

10) 이한상,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2004, pp. 134~135.

11) 남성골성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3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당시 고구려의 전략적 판단과 백제·신라의 대응으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상황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 A> 蓋鹵가 재위한 지 21년에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漢城을 에워쌌다. 개로는 성문을 닫고 스스로 굳게 지키면서 文周로 하여금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게 했다. (문주가) 군사 1만 명을 얻어 돌아오니, 고구려 군사는 비록 물러갔지만 성은 파괴되고 왕은 죽었으므로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 (문주왕은) 성품이 부드럽고 결단력이 없었으나 또한 백성을 사랑했으므로 백성들도 그를 사랑했다. 겨울 10월에 도읍을 熊津으로 옮겼다(『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문주왕 즉위).

위 사료는 백제의 웅진 천도 사실을 전할 뿐, 미호천 일대의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호천 유역은 금강 중류를 통해 웅진과 쉽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한성 함락과 웅진 천도는 미호천 유역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군은 3만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해 한성을 함락하고 백제 개로왕을 살해하는 성공을 거두었으나¹²⁾ 곧 바로 철수했다. 여기에 476년 2월 백제가 漢北의 민호들을 대두산성으로 이주시킨 점¹³⁾ 중시하면, 백제는 한성 일대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미호천 일대는 별다른 영토적 변화를 겪지 않은 셈이 된다. 반면 『삼국사기』 지리지처럼 평택-직산-진천-괴산 선이 고구려의 '군현'으로 편입되었다면, 고구려의 압박으로 미호천 유역의 긴장이 격화되었을 것이다.

만일 476년 이주당한 민호의 실제 거주지가 한강 이북이었다면, 당시 한강 이남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민호들이 한성 함락과 함께 남하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漢北'이라는 표현만으로 단정

할 수는 없다. 또한 한성을 함락한 고구려군의 일부가 잔류했다라도 장수왕이 주력군과 함께 귀환한 점만이 기록 과정에서 강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는 한성 침공에서 고구려가 추구했던 전략을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침공 시점이 주목된다. 그 시점은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에서 가을 9월로 되어 있다. 음력 9월은 대체로 양력 10월인데, 겨울이 임박한 시점에 고구려군이 백제 전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장기간 전쟁을 벌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구려는 장기전을 수행할 경우 북위의 개입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했다.¹⁴⁾ 게다가 백제를 침공했다가 나·제 연합군에 의해 격퇴당한 바 있었던¹⁵⁾ 고구려는 이번 침공에서도 신라가 개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⁶⁾

그렇다면 위 사료에서 고구려군의 공격은 백제를 전면적으로 장악하기보다 기습을 통해 타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군이 물러간 것도 이미 계획된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군의 일차적인 침공목표는 고구려에 대한 개로왕의 견제정책을 응징하는 데 있었다. 고구려는 그 당사자인 개로왕을 살해하고 남녀 8천 명을 사로잡아 돌아가는 것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로 볼 때, 고구려 주력군이 적어도 미호천 유역까지 동시에 공격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것이 고구려군이 한성을 바로 포기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漢州는 옛 고구려 '군현' 지역으로 전해지며 忽, 達, 押 등 고구려계 지명어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¹⁷⁾ 이는 통일신라의 9주에 속한 군현의 연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다. 『삼국사기』 지

12) 『삼국사기』 권제25 백제본기 개로왕 21년 9월 및 권제18 고구려본기 장수왕 63년.

13)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문주왕 2년.

14) 노태돈, 「고구려의 한성 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향토서울』 66, 2005, p. 179.

15) 『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39년.

16) 노중국, 「한성백제의 몰락과 수도 이전」, 『향토서울』 64, 2004, pp. 65~66.

17)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pp. 26~32.

리4 고구려조에서는 漢山州 군현의 숫자가 지리2의 한주보다 12개소가 더 많지만 남방 한계는 동일하며, 경덕왕 16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¹⁸⁾ 따라서 『삼국사기』 지리지에 반영된 고구려 '군현'의 남방한계는 고구려의 최대 남하범위 중 9주 편성 직전의 한산주 남방한계를 반영할 뿐이다. 이것은 5세기 말 고구려의 남방 한계선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미호천 유역의 상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우선 고구려가 평택-직산 선을 장악했다는 기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위 사료에서는 개로왕의 아들 문주가 신라로부터 군사 1만을 얻어 돌아왔다고 했다. 문주가 도착한 지점을 한성으로 볼 경우, 위 지리지의 기록을 475년 직후의 사실로는 인정하기가 곤란해진다. 그런데 한성은 신라의 구원군이 이르기 전에 이미 고구려에게 함락당하고 개로왕도 살해된 상태였다.¹⁹⁾ 위 사료에서도 문주가 도착한 곳이 한성이라고는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한성 함락 이후 5세기 말까지 고구려군은 몽촌토성에서 광구장경사이옹 등 고구려 토기를 사용하면서 이곳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다.²⁰⁾ 용인 보정동 고분군 석실에서도 고구려 계통의 단경호가 조사되었고,²¹⁾ 성남 판교동 유적의²²⁾ 제19구역 가.지점 1-①·②호 설실분도 고구려 계통으로 추정되었다.²³⁾ 이상은 고구려가 몽촌토성을 근거지로 삼아 한강 이남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위 사료에서 성이 함락당하고 고구려 군사가 몰려갔다는 것은

18) 김태식,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의 사료적 검토', 『역사학보』 154, 1997, p. 37, p. 45.

19) 『삼국사기』 신라본기 자비마립간 17년 7월.

20) 최종택, 「한강유역 고구려토기 연구」, 『한국고고학보』 33, 1995, p. 41; 최종택, 「몽촌토성 내 고구려유적 재고」, 『한국사학보』 12, 2002, p. 19, pp. 28~37.

21) 백종오, 「남한 내 고구려 유적 유물의 새로운 이해」, 『선사와 고대』 28, 2008, p. 120.

2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성남 판교지구 문화유적 2차 발굴조사-5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2007.12.14.

23) 백종오, 2008 앞글, p. 121.

문주가 직접 목도한 것이 아니라 파견대나 한성으로부터 남하한 백제인들을 통한 전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개로왕이 살해당하고 고구려군이 한성에 주둔하는 상황에서 문주는 한성에 이르는 것을 포기하고 왕위에 오른 뒤 새로운 수도를 찾아 남하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가 한수 이남의 경기 지역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평택-직산 선을 장악했다는 기록을 굳이 부정하기는 어렵다. 사료상으로 보는 한, 그 시점으로서 가장 유력한 대상은 한성이 함락된 475년 직후이다. 다만 위 평택-직산 선이 통일신라 한주의 남쪽 경계선에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고구려가 실제로는 직산으로부터 더 남쪽으로 진출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직산의 남쪽으로는 지형적 장애 없이 천안으로 연결되며, 이곳은 차령산맥을 통해 금강 중류로 통하는 데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는 직산과 인접한 천안 방면을 통해 차령산맥 이남의 금강 유역을 위협했으리라 짐작된다.

다음으로 진천-괴산 방면에서는 국원성이 고구려의 중심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그림 1) 참조). 지금까지 중원 지역에서는 고구려의 대규모 성곽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충주 두정리고분 B지구 2호·6호 석실분에서 고구려 계통의 장동호가 출토되어²⁴⁾ 고구려의 지배를 뒷받침하고 있다. 임진강 이남의 고구려 관방시설들을 고려할 때 충주 일대에서는 대규모 성곽보다는 주로 소규모 보루 시설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⁵⁾ 고구려는 이러한 보루들을 거점으로 주변 지역을 통제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원성의 고구려군이 한성 함락에 보조를 맞추어 독자적으로 백마령 선을 넘어 미호천 유역을 공격할 만한 여력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성 함락 이후 고구려는 이곳과 남한강 상류를 연결하는 남한강 하류도 장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남한강 하류의 안성시 일죽 방면에서는 비교적 완만한 고개를 넘으면 바로 미호천 유역으로 통할 수 있다. 고구려

24) 백종오, 앞글 인용과 같음.

25) 신라사학회 제74차 월례발표회시 「2008.7.12」 서영일 선생님의 지적을 기초로 함.

에서 신라의 원군은 일모산성 주변의 신라군과 협조해 미호천 일대의 백제군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 방면에서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원 주성리 백제 고분에서 조사된 5세기 후반의 적석묘가 주목된다. 이 묘는 암반층을 장방형에 가깝게 굴착해 묘광을 만들고 내부에 작은 할석과 사질토를 채워 신라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²⁶⁾ 백제 고분에서 신라 계통의 묘제가 확인되는 것은 신라의 영향력이 이 방면까지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청주의 지배세력이 문헌 신봉동 고분군에서는 5세기 중후반에 걸쳐 마구와 환두대도 등의 무구들이 지속적으로 부장되었다.²⁷⁾ 이러한 묘곽들은 이 고분군의 중북부로부터 정상부 방면까지 묘광 간 중복이 거의 없이 분포하고 있다.²⁸⁾ 이는 청주 지역에서 지배세력의 급격한 교체나 몰락이 거의 없었고 정치·군사적으로 기존과 유사한 구심력이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그 구심력은 기존에 이 방면을 지배했던 백제로부터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신봉동고분군에서 마구·무구의 부장이 많았던 것은 5세기 이후 미호천 일대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백제가 청주의 지배세력에 대해 군사적 지원과 통제를 강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마구·무구의 부장 경향으로 보아 이러한 지원과 통제는 웅진천도기에도 계속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5세기 후반의 미호천 유역에서는 신라의 영향력과 백제의 독자성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 이는 미호천 유역에 대한 백제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백제는 신라의 군사적 지원을 이용하면서도 미호천 방면에서 기존의 지배력을 거의 유지한 것이다.

2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 『청원 주성리유적』, 2000, pp. 110~111, p. 182.

27) 충북대학교박물관 외,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2003년도 조사-』, 2005, 도면4: 차용길, 「청주 신봉동유적의 고고학적 검토」, 『백제 지방세력의 존재양태』,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p. 65, p. 153; 성경용, 「금강유역 4~5세기 분묘 및 토기의 양상과 변천」, 『백제 연구』 28, 1998, p. 83, p. 88.

28) 차용길, 2005 앞글, p. 45.

433년 이래 나·제 간의 협조는 고구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신라가 백제의 웅진 천도와 미호천 방어를 도우면서 기존의 우호관계는 운명을 건 군사적 동맹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다만 백제가 국가적 존망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데 비해, 신라는 그 중심부를 직접 위협당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성 함락이 신라에게는 금강 중·상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일 수도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동맹의 주도권은 사실상 신라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신라는 백제에 대한 지원을 활용해 기존 소백산맥 서쪽에 대한 지배를 안정화하고 미호천 일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모습도 확인된다. 웅진천도 직후인 476년 3월 백제는 宋으로 사신을 보내려 시도했다.²⁹⁾ 고구려군에게 막혀 백제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송과의 교섭을 통해 왕조의 재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480년 동성왕이 南齊에 사신을 보내 鎮東大將軍 작위를 받은 직후인 4월에 고구려 장수왕도 사신을 보내 驃騎大將軍의 작위를 받았다.³⁰⁾ 이는 479년 柔然과 공모해 거란을 공격함으로써 북위와의 관계가 악화된³¹⁾ 이후 북위를 견제하려던 고구려와 479년 건국해 북위를 견제하려던 남제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왕이 집권 초기부터 대 남제 외교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³²⁾ 백제 왕조의 회복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동시에 고구려에 대한 견제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백제가 웅진 천도에 성공하고 나·제 양국이 미호천 유역을 공동으로 방어한 결과 삼국은 이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치상황을 연출했다.

29) 『宋書』 권97 列傳 제57 夷蠻 百濟國.

30) 『南史』 권4 齊本紀 상 제4 高帝 建元 2년.

31) 이재성, 「4~5세기 고구려와 거란」, 『고구려연구』 14, 2002, p. 39.

32) 박진숙, 「백제 동성왕대 대외정책의 변화」, 『백제연구』 32, 2000, p. 5.

이는 고구려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나마 향후 삼국 간의 세력균형을 회복하는 기반이 되었다.

3. 고구려의 금강 선 차단

백제의 웅진 천도 직후 삼국의 대치선이 미호천 유역 북쪽에서 안정된 것은 나·제 양국의 공동 대응과 한강 유역을 장악한 고구려의 현상유지 정책이 균형을 이룬 결과였다. 그런데 5세기 말의 자료로 보면 이러한 균형에 적지 않은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된다. 본 장에서는 금강 중·상류를 중심으로 그 변화의 계기와 과정을 파악하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청원 남성골성과 대전 월평동유적이다. 남성골성에서는 고구려 토기가 조사되어 이곳이 고구려 군에 의해 장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외곽 목책열의 탄화물에서는 A.D. 480년과 495년의 연대가 추출되어 목책열의 축조시기가 5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되고 있다.³³⁾ 대전 월평동유적에서도 월평산성 축조 이전 유구에서 橋狀把手, 직구옹편, 장동호편 등의 고구려 토기가 조사되었다.³⁴⁾ 이 토기들은 몽촌토성의 고구려 토기와 유사성을 보이며,³⁵⁾ 특히 평저 형태, 장동호의 굽기 정면수법, 소성정도 등이 남성골성의 것과 유사해 고구려군이 대전 지역에 주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³⁶⁾ 웅진이나 소백산맥 서쪽에서 신

33) 차용걸, 「충청지역 고구려계 유물 출토유적에 대한 소고」, 『호서지방사연구』, 경인문화사, 2003, p. 33.

34) 박순발·이형원, 1999 앞글; 이한상, 「대전 월평산성 출토 고구려토기」, 『학산 김정학박사 송수기념논총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 학연문화사, 2000;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외, 2001 앞책.

35) 이한상, 2000 앞글, p. 607; 충청문화재연구원 외, 『대전 월평동산성』, 2003, pp. 125~126, pp. 137~138.

36) 차용걸, 2003 앞글, p. 36.

라의 중심 거점인 삼년산성(보은)보다 훨씬 남쪽이라는 위치와 나·제 간의 군사적 협조로 볼 때, 이 성을 장악한 목적은 백제의 수도를 직접 위협하는 동시에 나·제 간의 군사적 협조를 차단하는 데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군의 주둔 시기에 대해서는 5세기 후반~말경³⁷⁾ 혹은 6세기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는데,³⁸⁾ 이 성의 전략적 기능을 고려하면 5세기 후반경의 남성골성 진출과 연결시키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의 남성골성·월평동 진출로 고구려에 대한 나·제의 방어는 실패로 돌아가고 미호천 유역을 둘러싼 3국 간의 세력균형도 깨졌음을 알 수 있다.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가장 밀접히 관련된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 B> 가을 7월에 고구려가 北邊에 침입하니, 우리 군사들과 백제가 母山城 아래에서 함께 공격해 크게 깨뜨렸다(『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6년).

위 사료에서 따르면 소지마립간 6년(484) 고구려가 신라의 北邊인 母山城에 침입했고, 신라군과 백제군이 모산성 아래에서 이를 격퇴함으로써 고구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모산성은 위치를 설명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다양한 지역으로 비정되어 왔다.³⁹⁾ 그런데 위 사료에서 모산성은 신

37) 충청문화재연구원 외, 2003 앞책, pp. 125~126, pp. 137~138.

38) 국립공주박물관 외, 『대전 월평동유적』, 1999, p. 217; 이한상, 2000 앞글, p. 609.

39) 위 사료의 母山城은 당시 삼국의 접촉점이었던 보은의 북방 부근(津田左右吉, 「長壽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 제1권,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p. 98) 또는 진천 동쪽 6리에 위치한 大母山城(『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진천현)으로 비정된 바 있다(민덕식, 「진천 대모산성의 분석적 연구」, 『한국사연구』 29, 1980). 신라 벌휴이사금 5년(188) 백제의 공격을 받았다는 母山城은 당시 신라의 성장 과정을 고려해 문경·예천 일대로 추정되거나(최병운, 「신라 상고의 영토변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p. 112~113) 벌휴대 신라의 정복 지역을 중시해 경북 의성으로 비정되기도 했다(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 상, 『한국학보』 2, 일지사, 1976, p. 46).

라의 북변 중에서 고구려의 침공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신라군과 백제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용이한 거점이다. 이러한 지역은 삼국이 동시에 대치선을 마주하며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많은 곳에서 찾아져야 한다. 또한 위 사료에서 고구려의 공격은 대체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향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충족하는 신라의 '북변'으로서는 남한강 유역을 통해 고구려의 압박이 이루어졌던 미호천 상류와 494년 고구려의 공격이 이루어졌던 달천 상류의 薩水 방면을(4장 <사료 G>) 들 수 있다. 그런데 475년 이후 신라와 백제는 한강 유역을 통한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해 미호천 유역을 공동 방어했고, 위 사료에서도 나·제 양국군은 고구려군의 공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동대응했다. 이를 고려하면 모산성은 미호천 유역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484년 고구려군의 미호천 유역 공격은 한성 함락 이래 고구려가 미호천 일대에 가했던 압박과도 부합하고 있다. 남성골성의 고구려군과 미호천 유역의 나·제군이 대치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가 동북쪽으로 불과 25km 정도 떨어진 남성골의 고구려군과 장기간 대치하면서, 다시 그 북쪽의 미호천 유역에서 남한강 유역으로부터 가해진 고구려의 침공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신라의 모산성 장악이 남성골성으로부터 고구려군이 퇴각한 결과였다면, 고구려군의 남성골 장악 기간은 475년 이후의 일정한 시점으로부터 484년 이전의 어느 시점까지 설정될 수도 있다. 그런데 475년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백제는 미호천 유역을 유지했고, 남성골성의 고구려군은 구돌집을 지어 사용하고⁴⁰⁾ 토기 제작과⁴¹⁾ 단야활동까지 했다.⁴²⁾ 이러한 점들은 일단 고구려군의 주둔 기간이 그리 짧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475년 직후 고구려가 미호천 유역에 대한 공세를 벌이지 않았다는 앞의 지

40) 충북대학교박물관, 2004 앞책, pp. 190~202.

41) 앞책, p. 275.

42) 심광주, 2001 앞글, p. 487.

적도 이와 부합하고 있다. 그러면 고구려가 금강 중류의 부강 일대를 직접 압박하게 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자.

고구려는 한성을 함락한 이후에도 백제를 압박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구려는 476년 3월 송으로 향하던 백제의 사신을 방해했고,⁴³⁾ 478년에는 백제로부터 망명한 燕信을 받아들였다.⁴⁴⁾ 반면 백제는 웅진 천도와 왕조의 재건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동시에 고구려에게 상실한 지역을 수복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본고의 초점이 아니지만 위 사료의 배경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다뤄보려 한다.

<사료 C> 筑紫의 安致臣·馬飼臣 등이 수군(船師)을 거느리고 高麗를 공격했다(『일본서기』 권제14 웅략천황 23년).

<사료 D> 가을 9월 말같이 漢山城을 습격해 깨뜨리고 3백여 호를 사로잡아 돌아갔다(『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동성왕 4년).

위에 따르면 웅략 23년(479) 倭가 수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했다고 한다(<사료 C>). 이 해에 왜로부터 귀국해 즉위한 백제 동성왕도 筑紫國의 군사 500을 호송군으로 데리고 왔다.⁴⁵⁾ 두 번에 걸친 군대 동원이 시기적으로 가까운 점으로 보아 서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구려에 대한 왜의 공격은 백제의 요청에 따라 미리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료 D>에 따르면 백제는 동성왕 4년(482)까지 漢山城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후 백제가 한강 유역을 유지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무령왕대까지 연속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⁴⁶⁾ 그런데 백제는 웅진 천도 이후 신라와 협조해 웅진 동북쪽의 미호천

43) 『宋書』 권97 列傳 第57 夷蠻 百濟國.

44) 『삼국사기』 권제18 고구려본기 장수왕 66년.

45) 『일본서기』 권제14 웅략천황 23년 4월.

일대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고 있었다. 백제는 478년 9월 解仇에 의해 문주왕이 시해되고 삼근왕 2년 해구의 반란이 일어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으나, 뒤집어 말하면 이는 백제의 대외적 위협이 적어도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았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들이다. 백제가 남제에 꾸준히 사신을 파견한 것도⁴⁷⁾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백제는 구토회복에 대한 의지를 가질 만한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성왕 4년 이후 백제가 한산성을 유지했다는 기사를 받아들여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사료 C>로 보아 백제는 479년의 대 고구려 공격과 같은 시도를 통해 482년까지 한산성을 장악했다고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동성왕은 즉위년부터 4년 사이에 한성 이남의 일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산성을 설치했던 것이다.⁴⁸⁾

백제가 한산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왜의 협조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라와의 협조가 뒤를 지탱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제 연합군의 공세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고구려에게 신라는 남진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다음 사료는 이와 관련한 고구려의 대응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6)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한강 유역 유지설(정운용,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 관계」, 『백산학보』 46, 1996, p. 122), 551년까지 백제의 한강 유역 회복 부정설(今西龍,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1934, p. 26, pp. 120~121), 백제 漢城의 직산 이동설(이기백, 「웅진시대 백제의 귀족세력」, 『백제연구』 9, 1978, pp. 6~7), 동성왕대(성주탁·차용걸, 「百濟儀式考」, 『백제연구』 12, 1981, p. 12) 또는 무령왕대 백제의 한강 유역 회복설(양기석, 「웅진시대의 백제지배층연구」, 『사학지』 14, 1980, pp. 22~23) 등이 제기되었다.

47) 『南齊書』 권58 列傳 第39 東夷 百濟國.

48) 다만 475년 직후 기존의 漢城인 몽촌토성 일대는 고구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으므로, 위 한산성을 이 한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삼국사기』 지리2 漢州에 정리된 고구려 군현의 분포 범위만을 중시해 위 한산성을 직산 일대로 보는 것은(이기백, 1978 앞 글, pp. 6~7) 문제가 있다. 다만 백제가 기존의 한성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산성은 대체로 한강 이남의 경기 지역 어느 곳에 위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료 E> 3월에 고구려와 말갈이 함께 北邊에 들어와 狐鳴城 등 일곱 성을 빼앗고 또 彌秩夫까지 진군했다. 우리 군사와 백제·가야의 원병이 함께 길을 나누어 이들을 막았다. 적이 패하여 물러가므로 이들을 추격해 泥河 서쪽에서 공격해 깨뜨리고 천여 명을 목 베었다(『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3년).

이에 따르면 481년 고구려군은 말갈과 함께 신라 북변의 7성을 빼앗고 미질부(홍해)까지 진군했다. 이 침공은 나·제동맹을 압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이는 국경에서의 일상적인 충돌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고구려군이 狐鳴城을⁴⁹⁾ 거쳐 홍해까지 진군한 것은 공격 목표가 사실상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481년 고구려군의 공격은 신라의 운명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도 있었다. 이 경우 백제도 치명적인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백제는 즉시 가야와 함께 원군을 파견했다. 신라·백제·가야 연합군은 홍해 일대에서 고구려군을 격퇴한 뒤 泥河(강릉?) 서쪽까지 추격해 큰 타격을 입혔다.

고구려가 신라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히려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백제의 왕조 재건과 실지 회복에 신라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듬해 고구려는 다시 백제의 한산성을 공격해 타격을 입혔으나, 나·제 양국에 대해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도 고구려는 北魏와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벌여 484년 10월에는 북위에 파견된 신하가 南齊에 이어 두 번째 숙소를 제공받을 만큼 관계를 안정시키고 있었다.⁵⁰⁾ 바로 이러한 시점에 고구려는 미호천 상류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또한 이 사건이 신라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된 점으

49) 호명성은 강원도 김화·죽령(井上秀雄, 『三國史記』 1, 平凡社, 1980, p. 83), 홍해 부근(양대진, 「고구려 영토 연구」, 『군사』 18, 1989, p. 34) 혹은 영덕으로 비정된 바 있다(서영일, 「5~6世紀의 高句麗 東南境 考察」, 『사학지』 24, 1991, p. 19).

50) 『南齊書』 권58 列傳 第39 동이 高麗國: 『資治通鑑』 권136 齊紀2 世祖武皇帝 永明 2년 10월: 『삼국사기』 권제18 고구려본기 장수왕 72년 10월.

로 볼 때, 고구려의 모산성 공격은 일상적 충돌이 아니라 백제·신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온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고구려는 미호천 유역을 공격해 나·제 군사동맹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웅진의 동북부를 위협하려 했던 것이다.

고구려군은 남한강 수계인 안성시 일죽과 미호천 수계인 음성의 분기점에 위치한 망이산성 방면으로 침공했을 수도 있고, 국원성이 위치한 충주로부터 백마령 선을 넘어왔을 수도 있다(그림 11). 이 중에서 고갯길의 경사가 완만한 망이산성 방면이 지형상으로 유리한 편이며, 고구려는 한성에서 이 방면으로 통하는 남한강 하류도 확보하고 있었다. 484년 고구려군의 미호천 유역 공격은 일단 이 루트를 통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신라군은 고구려의 침공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로 보아 위사료의 신라군은 중앙으로부터 파견되기보다 미호천 유역에 주둔하던 병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모산성이 신라의 북변이라는 것은 475년 이후 확보된 신라의 거점이 아직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백제군 역시 신라군과 함께 고구려군에 대항해 싸웠다. 이 백제군이 미호천 유역에서 신라군과 함께 주둔했었는지, 그 이남으로부터 파견되었는지는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호천 유역은 원래 백제의 세력권이었고, 백제는 웅진 천도 이후에도 이 방면을 유지하기 위해 힘썼다. 백제군이 즉각적으로 신라군과 협조할 수 있었던 것도 백제군의 미호천 유역 주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5세기 말 미호천 유역에 대한 신라의 문화적 영향이 미미한 점으로 보더라도 백제가 미호천 유역을 모두 신라에게 내주었을지는 회의적이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는 미호천 유역에서 몇몇 거점들을 유지하면서 신라와 협조해 고구려와 대치한 것이다.

나·제 양국군의 대응으로 고구려군의 모산성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사료 B>에서는 그 뒤 고구려의 동향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의 움직임으로 보아 고구려가 미호천 방면에 대한 공격을 쉽게 포기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고구려군의 남성골성 장악이 다시

주목된다.

그 시점은 목책 구덩의 연대자료로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475년 이후 5세기 말일 가능성이 있다. 6세기 초에는 이 방면에서 나·제 양국이 고구려 세력과 대결하는 양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구려군의 남성골성 장악 시점은 475년 이후 5세기 말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480년대 초 이래 고구려는 나·제 양국에 타격을 입히고 상호 연결을 차단하려고 시도해 온 반면, 480년대 말 이후로는 남성골성·월평동 방면의 장악에 준하는 공세를 벌인 흔적이 찾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고구려는 484년 미호천 상류 공격과 같은 공세의 연장선상에서 금강 북안의 남성골성을 장악했을 것이다.

고구려군의 남성골성 진출루트가 미호천 유역을 거쳤는지, 차령산맥을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천안 방면을 거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⁵¹⁾ 다만 백제가 한산성을 확보한 점과 고구려가 한강 중하류를 장악한 점을 고려하면, 미호천 방면을 거치는 편이 유리했을 것이다. 미호천 유역이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고 동·서쪽의 측면이 산지로 고립된 점도 고구려가 이용하기에 유리한 縱深을 제공했다.⁵²⁾ 고구려군은 아차산성 일대로부터 남한강 하류를 거쳐 망이산성 방면에서 미호천 유역으로 남하했을 것이다. 이 방면을 통과한 고구려군은 금강 중류의 북안과 금강 상류의 대전 일대까지 장악했을 것이다.

그런데 남성골성 북쪽으로 인접한 복두산성에서도 기벽이 두터운 연결 옹편이 확인되어 고구려군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⁵³⁾ 이는 청원군 부강면 일대에 남아 있는 고구려 계통의 전승과⁵⁴⁾ 함께 고구려

51) 양기석, 2005 앞글, p. 35. 고구려가 미호천의 자연적 방어선과 그 주변의 백제 城들 때문에 미호천 서쪽으로 우회해 남성골성에 이르렀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김영관, 「고대 청주지역의 역사적 동향」, 『백산학보』 82, 2008, pp. 44~45).

52) 신라사학회 제74차 월례발표회 서영일 선생님의 지적을 참고함.

53) 중원문화재연구원 외, 『청원 부용면지역 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5, pp. 57~86, p. 196.

54) 정영호, 1989 앞글, pp. 114~126.

가 이 일대에서 복수의 성을 장악해 금강 본류와 미호천의 합류 지점을 방비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월평동 유적의 고구려 토기도 고구려군이 한동안 두 지점의 선을 장악했음을 보여준다. 양 지역의 장악은 백제의 웅진과 신라의 소백산맥 서쪽 거점들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변 일대를 공고하게 지배하기 위한 시설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에 장악한 남한강 유역으로부터 두 지점에 이르는 통로상에는 몇몇 보루들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⁵⁵⁾ 남성골성과 월평동 유적은 금강 중·상류 일대를 영토적으로 지배하기보다 백제의 수도를 위협하고 나·제 양국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전진기지에 가까웠던 것이다. 고구려가 이를 확보한 결과, 한성 함락 이후 지탱되던 삼국 간의 세력균형은 무너졌고, 백제·신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4. 백제의 미호천 유역 회복과 대치선 안정

고구려의 남성골성·월평동 장악은 금강 중·상류에서 백제·신라의 거점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나·제 양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 노력했을 것이며, 이는 상호간에 적지 않은 충돌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크다. 본 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소되어 삼국 간에 새로운 세력구도가 성립하는 과정을 밝혀보려 한다.

남성골성-월평동 선 장악은 고구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주었다. 백제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측면 거점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호천 유역에서 남북으로 길쭉하게 확보한 縱深을 유지하기가 곤란할 수 있

55) 남성골성-월평동유적을 잇는 고구려의 라인이 제시된 바 있다(충청문화재연구원 외, 2003 앞책, p. 131). 한강 이남에서 고구려의 진출은 군사적 목적의 교통로 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심광주, 2001 앞글, pp. 484~486) 영역화 조치는 부족했다고 한다(서영일, 2005 앞글, p. 61).

었다. 그 동·서쪽 측면이 각각 소백산맥·차령산맥 줄기로 막힌 점은 고구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으나, 한산성을 확보한 백제와 소백산맥 서쪽을 장악한 신라가 언제든지 이 중심의 측면을 위협할 수 있었다. 청원군 부강에 복수의 고구려 성이 존재한 점으로 보면, 고구려는 남성골성 인근을 공고히 장악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원 상봉리에서 출토된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초로 추정되는 고구려 귀걸이로⁵⁶⁾ 보아 고구려는 미호천 일대 세력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봉동고분군처럼 미호천 유역의 대표적인 고분군에서는 고구려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미호천 일대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제 양국의 공세에 직면할 경우 고구려의 거점들은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

남성골성은 二重 목책렬에 점토를 바른 상태로 이용되던 중 A·B·C지구에 걸친 대대적인 화재로 폐기되었다. 이때 목책 기둥 구멍에 고구려 토기편이 많이 유입되었으므로,⁵⁷⁾ 이 화재는 고구려군의 전면적인 퇴각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불탄 목책기둥 구멍의 방사성탄소연대는 5세기 후반으로 추출되었으나, 고구려의 남성골성 장악 시점과 토기가마의 하한 연대값 520년⁵⁸⁾ 고려하면 고구려군의 퇴각 시점은 일단 5세기 말~6세기 초에서 구해질 수 있다. 월평동 유적에서는 5세기 말~6세기 중엽 사이에 고구려군이 물러간 뒤 백제가 '목책②'을 설치했다고 한다.⁵⁹⁾ 대저 장공에서 호류가 출토된 점으로 보면⁶⁰⁾ 이곳의 고구려군도 장기 주둔을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구려군이 퇴각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이곳의 기능과 연관된 삼국 간의 대치 상황을 보다 면밀

56) 이한상, 2004 앞책, pp. 134~135 및 「고구려의 장신구」,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서울특별시, 2005, pp. 193~195.

57) 충북대학교박물관, 2004 앞책, p. 45.

58) 앞책, p. 293.

59) 충청문화재연구원 외, 2003 앞책, p. 131.

60) 이한상, 2000 앞글.

히 검토해야 한다.

금강을 차단당한 이후 백제는 485년 5월 신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했다.⁶¹⁾ 이는 고구려의 공세에 직면한 양국의 공동대응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듬해인 487년 임나에 근거한 紀生磐宿禰가 고구려와 교통해 고구려 땅 爾林에서 백제의 適莫爾解를 죽이고 백제의 군량 운송을 방해했다고 한다. 이에 백제왕이 노하여 기생반숙네를 공격해 임나로부터 축출하고 300여 명을 죽였다고 한다.⁶²⁾ 고구려와 가야의 연결은 전통적인 친백제 노선에서 벗어나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꾀하려는 가야의 입장과 나·제의 동맹을 배후에서 견제하려는 고구려의 입장이 부합한 결과였다.⁶³⁾ 이는 남성골성·월평동 선을 장악한 고구려가 나·제에 대한 압박을 다각도로 지속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489년 9월에도 고구려는 신라의 북쪽 변경을 급습해 戈峴에 이르렀고, 다음 달에는 신라 狐山城(회양군 회양면?)을 함락했다.⁶⁴⁾ 사료상으로 나·제 양국은 이러한 압박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제 양국의 위급한 상황으로 보아 이는 실제와 거리를 두었을 것이지만, 고구려의 공세 때문에 양국의 공동대응이 적지 않게 차단당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듬해인 동성왕 12년(490) 7월 백제는 北部 사람으로서 나이 15세 이상인 자들을 징발해 沙峴城(공주시 정안면 광정리)과 耳山城을 쌓았다.⁶⁵⁾ 이 산성에 대해서는 증평 이성산성이라는 견해와⁶⁶⁾ 도성 방어용이라는 견해가⁶⁷⁾ 있다. 전자에 따르면 백제는 당시까지 금강 북안의 고구려군을 밀어

61)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동성왕 7년 및 권제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7년.

62) 『일본서기』 권15 현종천황 3년 是歲.

63) 양기석, 「5세기 후반 한반도 정세와 대가야」,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6.9.22~9.23, p. 13.

64) 『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11년.

65)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동성왕 12년.

66) 민덕식, 「高句麗의 道西縣城考」, 『사학연구』 36, 1983, p. 43.

내고 미호천 유역의 증평 일대까지 장악했다고 볼 수도 있다. 미호천 수계에 위치한 이성산성은 일찍부터 삼국기의 백제계 성으로 알려졌는데,⁶⁸⁾ 그 동북쪽 남한강 수계의 음성천과 가까우므로 미호천 유역의 방비에 중요한 기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의 압박에 시달리던 백제가 웅진 북부의 사람들을 이곳까지 동원해 축성활동을 벌였을지는 회의적이다. 이성산성은 웅진 외곽을 방비하기 위해 구축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490년까지 나·제 양국이 수세적 방비에 치중한 점으로 보아 고구려는 금강 본류의 전진기지를 아직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다음 사료는 이러한 추세와 부합하면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사료 F> ㉠ 是歲에 魏虜가 또다시 기병 수십만을 동원해 백제를 공격하여 그 경계를 침범하니, 牟大가 장군 沙法名·贊首流·解禮昆·木干那를 파견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魏虜軍을 습격해 크게 무찔렀다.

㉡ 建武 2년 牟大가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말했다. “신은 예부터 봉작을 받은 이래 대대로 조정의 영예를 입었고, 더욱이 節符와 斧鉞을 받아 모든 변방을 평정했습니다. 지난번 姐瓘 등이 모두 영광스러운 관작을 제수받아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 지난 경오년 狷狷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 깊숙이 쳐들어 왔습니다. 신이 沙法名 등을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역습해 토벌케 하여 밤에 번개처럼 기습 공격하니, 匈梨가 당황하여 마치 바닷물이 들끓듯 붕괴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급히 쫓아가 베니 시체가 들을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銳氣가 꺾이어 고래처럼 사납던 것이 그 흉포함을 감춥니다. ㉣ 지금 천하가 조용해진 것은 실상(사법)명 등의 피이오니 그 공훈을 찾아 마땅히 표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⁶⁹⁾(『南齊書』 東夷列傳 百濟).

67) 서정석, 『백제의 성곽』, 학연문화사, 2002, p. 82.

68) 민덕식, 1983 앞글, p. 40.

69) 원문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조선전 역주』 一(1987, pp. 428~429)을 참조함.

위에 따르면 경오년(490) 獫狁과 匈梨가 백제로 깊숙이 쳐들어 왔다가 沙法名 등에 의해 격퇴당했다고 한다(사료 F-㉞).⁷⁰⁾ 이때 백제를 공격한 주체는 북위⁷¹⁾ 또는 고구려라는 견해와⁷²⁾ 양국의 연합군이라는 견해가 있다.⁷³⁾ 그런데 위 사료에서 獫狁의 격퇴와 匈梨의 붕괴는 서로 연동되고 있다. 獫狁은 북방 오랑캐를 가리키는데,⁷⁴⁾ 여기서는 고구려에 대한 비칭을 강조하기 위해 시기와 대상을 다르게 끌어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匈梨도 고구려로 볼 수 있지만⁷⁵⁾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된 비칭이다. 당시까지 고구려는 백제를 압박해 왔고, 북위는 백제보다 유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⁷⁶⁾ 또한 당시 북위가 대 백제 공격에 참여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한 점으로 보아 두 세력은 사실상 고구려를 가리킬 것이다.

위 사료에서 고구려에 대한 격퇴를 성공적으로 묘사한 것은 거꾸로 말하면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압박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백제에 대한 공격이 깊숙했다는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백제는 沙法名 등에게 군대를 주어 역습했고 그 여세를 몰아 추격해 많은 수의 적을 베었다고 한다. 이로써 고구려군의 銳氣가 꺾이고 虜포함을 감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제에게 백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서, 사실상 백제가 고구려의 공세에 부심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백제는 고구려의 추가적인 공세를 막을 수 있었으나 고구려의 세력권을 새롭게 잠식할 수는 없었다.

연대가 불명인 是歲에는 魏虜가 기병 수십만을 동원해 백제의 경계를 침범하자, 牟大 즉 동성왕은 사범명 등을 보내 습격해 물리쳤다고 한다(사료 F-㉠). 지리적 조건과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위로 역시 북위가 아니라

고구려일 것이다.⁷⁷⁾ 그런데 490년 '獫狁'이 백제를 침공한 이유는 지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데 있었다고 한다(사료 F-㉞). 위 사료의 전개로 보아 기존의 잘못은 '是歲'에 백제를 공격한 사실로 여겨진다. 490년 직전부터 고구려는 백제를 여러 차례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성왕 10년(488) 백제가 '魏'의 공격을 격퇴했다는 기록과도⁷⁸⁾ 부합하고 있다. 양쪽 사료의 전두가 동일한 사건인지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대략 488년부터 490년까지 고구려가 백제를 적극적으로 압박했음을 알 수 있다. 백제가 이 사실을 남제에게 반복적으로 언급한 목적은 남제의 책봉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백제가 고구려의 침공을 커다란 위기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490년경까지 백제·신라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고구려에 대응했던 것은 고구려가 여전히 금강 선을 차단하고 양국을 압박한 데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93년 백제 동성왕이 신라에 혼인을 요청해 소지왕은 이별찬 比智의 딸을 보냈다.⁷⁹⁾ 이는 고구려·북위의 침입을 격퇴할 정도로 성장한 백제가 신라에 대해 정치적 지배력을 확대하고 내정간섭까지 도모하는 계기로 평가되었다.⁸⁰⁾ 그러나 웅진 동북부가 고구려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당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혼인 요청은 백제의 절박한 상황을 신라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처지와 무관하지 않았다. 신라가 이를 받아들인 것도 양국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는 금강 북안의 고구려군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뒤 백제가 남제에 사신을 보낸 건무 2년(495) 당시에는 모든 변방이 평정되었다고 언급되었다(사료 F-㉠). 물론 이 해에도 고구려가 치양성을 공격해 백제가 신라의 도움을 얻어 격퇴한 바 있으나,⁸¹⁾ 이는 기존의 '깊숙

70) 『남제서』 권58 열전 제39 東南夷.

71) 국사편찬위원회, 1987 앞 역주본, pp. 437~438.

72) 유원재, 「魏虜의 百濟侵入 記事」, 『백제연구』 23, 1992, pp. 92~93.

73) 박진숙, 2000 앞글, p. 16.

74) 유원재, 1992 앞글, p. 93.

75) 유원재, 앞 인용과 같음.

76) 김현숙, 「고구려와의 관계」, 『백제의 대외교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p. 56.

77) 유원재, 1992 앞글, p. 94.

78)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동성왕 10년: 『資治通鑑』 권137 齊紀2 武帝 永明 6년.

79)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동성왕 15년 3월 및 권제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15년 3월.

80) 박진숙, 2000 앞글, pp. 18~19.

81) 『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17년, 권제19 고구려본기 문자명왕 4년, 권제26

한' 공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백제의 세력 범위가 한산성으로부터 북쪽으로 전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구려의 위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 "모든 변방이 평정되었다"는 말은 외교적인 수사에 가깝지만, 적어도 백제의 존립에 치명적인 위협은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금강 중·상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해 다음 사료가 주목된다.

<사료 G> 가을 7월에 장군 實竹 등이 고구려와 薩水の 들판에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犬牙城을 지켰다. 고구려 군사가 그곳을 에워싸니, 백제 왕 牟大가 군사 3천 명을 보내 구원해 포위를 풀게 했다(『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16년).

이에 따르면 소지마립간 16년(494) 신라군이 薩水(괴산군 청천)⁸²⁾에서 싸우다 패해 犬牙城으로 물러났다. 고구려 군사가 더 진격해 이곳을 포위하자 백제가 원군을 보내 격퇴시켰다고 한다. 견아성의 위치는 불확실하지만 공격·방어의 방향으로 보아 보은 주변일 가능성이 크다.⁸³⁾

여기서 고구려군의 공격은 서쪽의 미호천 방면으로부터의 협공을 동반하지 않았다. 고구려가 측면지원 없이 남한강 지류를 거쳐 남쪽으로 금강 상

류를 공격하는 것은 고구려가 금강 북안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작전이다. 이 공격에서 고구려의 측면 공격이 없었던 것은 당시 백제가 미호천 유역의 적어도 대부분을 회복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살수는 어느 세력의 영역이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가 방어적 입장에 처했던 점으로 보아 살수는 신라에 속했을 것이다. 이곳은 소백산맥 서쪽 중에서 남한강 수계에 속한다. 신라는 금강 상류의 견아성을 기반으로 남한강 지류까지 진출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고구려군이 미호천 유역으로 남하하기 이전보다 신라의 세력권이 오히려 확대된 상황으로서, 백제가 미호천 유역을 회복한 점과도 부합하고 있다. 이후 신라가 살수를 회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렇더라도 고구려 세력이 남한강 상류에 묶인 점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백제가 미호천 유역을 회복한 추세는 495년까지 모든 변방을 평정했다는 백제의 주장과도 부합하며(사료 F-⑥) 앞서 소개한 남성골성의 연대 자료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남성골성의 전면적인 화재는 바로 이 과정에서 고구려군이 퇴각하면서 발생했을 것이다.

고구려 세력권의 위축은 495년 8월 고구려의 雉壤城(배천) 공격을 백제가 신라의 지원을 받아 격퇴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곳은 한성 함락 이후 한강 이북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백제의 거점이다. 공격을 시작한 주체는 고구려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백제가 482년까지 한산성을 확보한 이후 한강 이북의 일부를 회복해 예성강의 서안까지 진출했고 신라와의 협조하에 이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498년 7월 동성왕이 탐라 정벌을 내걸고 武珍州에 진군할 수 있었던 것도⁸⁴⁾ 웅진 북·동 방면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496년 7월 신라는 고구려에게 牛山城을 공격당했다가 장군 實竹을 보내 泥河 가에서 격퇴했다.⁸⁵⁾ 그러나 이듬해 8월에는 고구려군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우산성은 함락당했다.⁸⁶⁾ 이때 백제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84)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동성왕 20년.

85) 『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18년, 권제19 고구려본기 문자명왕 5년.

백제본기 동성왕 17년.

82) 이는 薩이 '清涼'을 뜻함을 증시한 비정이다(丁若鏞, 『大東水經』 其三). 삼년군에 속하기도 했던 淸川縣은 본래 薩買縣이었다고 하므로(『삼국사기』 권제34 지리1 尙州), 이 견해는 지명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이를 금강 상류의 청주(정영호, 1989 앞글, p. 109) 또는 괴산군 청천면과 인접한 청원군 미원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양기석, 1999 앞글, p. 365; 서영일, 『충북의 고대사회』, 충청북도·충북학연구소, 2002, p. 49).

83) 견아성에 대해서는 문경설(정영호, 1989 앞글, p. 109), 보은설(이지린·강인숙, 『고구려 역사』, 사회과학출판사, 1988, p. 97), 보은 주성산성~함림산성설(양기석, 1999 앞글, p. 365, p. 372), 괴산군 청산설(井上秀雄, 1980 앞책, p. 86), 남한강 수계의 달천 상류설(津田左右吉, 1913 앞책, p. 221)이 있다. 현재로서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지만, 고구려의 공격이 살수(청천)를 지나 신라 영역으로 향했고 백제까지 위협을 느낀 점으로 보아 견아성은 괴산 남쪽의 보은 일대일 가능성이 더 크다.

나·제동맹이 균열한 결과라고 이해되고 있다.⁸⁷⁾ 결론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고구려의 이하 공격은 481년 고구려의 미질부 공격에 비하면 심각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건이었다. 남한강 유역이 고구려에게 차단된 상황에서 백제가 이하 방면으로 원군을 파견하는 것은 백제의 존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만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백제가 원군을 파견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우산성 전투가 백제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데 있었다고 판단된다.⁸⁸⁾ 495년 치양성에서 나·제연합군이 고구려군을 격퇴한 이후 고구려의 위협이 감소하면서 즉각적인 군사협조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신라의 대치선이 대체로 백마령-소백산맥 선에서 안정됨에 따라 나·제 양국이 군사적으로 협조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496년 고구려의 우산성 공격부터 양국 간의 군사적 협조가 기록에서 사라진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구려의 위협을 전제로 용인되었던 신라군의 미호천 유역 주둔은 이제 백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동성왕 23년(501) 백제가 炭峴에 목책을 설치해 신라에 대비한 것도⁸⁹⁾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된다. 미호천 유역 및 대전 월평동 일대를 회복한 백제와 소백산맥 서쪽을 지배하는 신라가 이제 상호 견제를 필요로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한성 함락 이래 고구려의 압도적 우세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세력균형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백제는 미호천 유역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해 안정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고구려는 497년 우산

86) 『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19년, 권제19 고구려본기 문자명왕 6년.

87) 박진숙, 2000 앞글, pp. 18~19; 양기석, 「백제의 사비천도와 그 배경」, 『백제와 금강』, 서경문화사, 2007, p. 47.

88) 고구려가 백제의 구원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로 백제의 지원이 힘든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신라에 대해 백제와 협력하지 말도록 경고했다는 견해도 있다(정재운, 「웅진시대 백제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고찰」, 『호서고고학』 4·5합집, 2001, p. 77).

89)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동성왕 23년 7월.

성 함락을 끝으로 신라에 대한 공격을 중지했고, 남한강 유역의 거점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신라는 소백산맥 서쪽의 금강 상류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6세기 초부터 신라가 내부 안정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6세기 중엽까지 삼국이 동시에 참여한 충돌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대치선 안정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력균형의 결과였다.

5. 맺 음 말

본고에서 필자는 금강 중·상류를 중심으로 5세기 말 삼국의 대치선 이동과 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제 그 결과를 정리해 맺음말에 대신하려 한다.

475년 한성을 함락한 고구려는 개로왕을 살해함으로써 백제의 견제정책을 응징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고구려의 주력군은 철수했으나, 일부가 남아 몽촌토성을 거점으로 삼아 아산만-백마령 선까지 장악했다. 신라가 보낸 원군은 한성 함락을 막는 데 실패했으나, 백제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웅진으로 천도했다. 고구려는 천안 방면으로 백제의 금강 중류를 압박했고, 남한강 하류를 통해 미호천 유역을 압박했다. 신라의 원군은 소백산맥 서쪽의 기존 신라군과 협조해 미호천 유역에서 백제군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곳에서 거점을 확보했다. 백제는 이를 용인하면서도 미호천 유역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이를 통해 왕조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나·제 양국은 고구려의 남하를 아산만-백마령 선에서 저지했고, 제한적 협조 관계에 머물렀던 나·제동맹은 이제 운명을 건 군사동맹으로 변화했다. 그 결과 고구려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나마 삼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치상황을 연출했다.

479년 즉위한 백제의 동성왕은 왜와 신라의 협조하에 아산만 이북을 회

복해 나갔다. 그 결과 482년까지 한산성을 확보해 몽촌토성의 고구려군과 대치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경주를 급습해 나·제 양국에 대한 압도적 우세를 유지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홍해에서 신라·백제·가야의 연합군에 의해 격퇴당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484년경 북서쪽의 북위와 관계를 안정시킨 고구려는 같은 해 7월 미호천 유역을 공격해 나·제 간의 연결을 차단하려 했다. 모산성 전투에서 나·제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고구려군은 격퇴당했으나, 고구려는 이 방면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고구려군은 미호천 유역을 거쳐 금강 중류의 청원 남성골성까지 장악하고 대전 월평동에도 거점을 확보했다. 두 거점은 백제의 웅진을 위협하는 동시에 이곳과 신라의 소백산맥 서쪽 거점 간에 연결을 차단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했다. 불완전하게나마 유지되었던 삼국 간의 세력균형은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

나·제 양국은 고구려의 금강 선 차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세적인 방어에 치중했다. 488~490년경 고구려의 대대적인 침공을 격퇴한 백제는 신라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금강 중·상류의 고구려 거점을 제거하고 494년까지는 미호천 유역을 회복했다. 이에 고구려는 495년 신라의 청천과 보은 방면을 공격했으나 나·제 연합군에 의해 격퇴당했다. 미호천 유역에 대한 지배를 회복한 백제는 안정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고, 신라는 소백산맥 서쪽의 금강 상류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남한강 유역의 거점을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는 6세기 중엽 한강 유역을 놓고 삼국이 격돌하기까지 상대적으로 삼국의 대치선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9. 1. 13, 심사수정일 : 2009. 2. 18, 게재확정일 : 2009. 3. 24)

주제어: 대치선 이동, 몽촌토성, 아산만-백마령 선, 군사동맹, 한산성, 미호천 유역, 남성골성, 월평동, 전진기지, 대치선 안정

<ABSTRACT>

The Shifts in the Confrontation Line of the Mid-upper Geum River and the Strategy of Three Kingdoms in the Late 5th Century

Lee, Bu-oh

This thesis is written to clarify the shift in the confrontation line of the mid-upper Geum River valley and the strategy of Three Kingdoms in terms of tactics followed by *Goguryeo's* surrendering *Han*-fortress, *Baekje*.

Main force units of the *Goguryeo* withdrew from the position right after the collapse, some of the force remained to command *Asan* coast-*Baekma* ridge line based on the *Mongchontoseong* as the strategic point. *Baekje* transferred its capital to *Ungjin* to rebuild a dynasty supported by *Silla*. *Goguryeo* maintained the dominance by oppressing the *Geum* River's mid valley and the *Miho* stream valley—a branch stream of *Geum* River—through the *Cheonan* and the down stream of *Namhan* River, respectively. *Silla* secured the *Miho* stream valley as the strategic place and supported the defense of the nearby *Miho* valley at the same time. The *Silla-Baekje* Allied switchover from restrictive cooperative relationship to destinies military alliance.

Baekje advanced to the *Hansan* fortress in contraposition with *Goguryeo* military with the help of cooperation of the *Wae-Silla* until 482. To make an example of this, *Goguryeo* attempted to make a raid on the capital of *Silla*, which ended up a failure. However, *Goguryeo* procured an advance base in the *Namseonggol* Fortress, *Jungwon* and *Weolpyungdong*, *Daejeon* through

the *Miho* stream basin in about 484, which resulted in the cut off between the *Baekje* and *Silla*, recovering the overwhelming dominance over those two countries.

Henceforth, both nations of *Silla-Baekje* laid stress on the defense against the *Goguryeo*. Though, *Baekje* founded the stepping stone to the stable development by recovering the *Miho* stream basin until 494. *Silla* stabilized its control over the upper *Geum* River as well as put pressure on the upper *Namhan* River valley. *Goguryeo* took a turn for the better preservation of the strong point in the *Namhan* River valley. In consequence, Three Kingdom's confrontation line maintained its relative stability until the violent collision between the Three Kingdoms around the *Han* River valley in the 6th mid-century.

Key Words : Shifts in the confrontation line, *Mongchontseong*, The *Asan* coast-*Baekma* ridge line, military alliance, the *Hansan* Fortress, The *Miho* stream valley, *The Namseonggol Fortress*, The *Weolpyeongdong*, an advance base, stability of confrontation line